

쌀 가공식품이 한자리에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내일부터 4일간 개최

종합전시관 12개·기업관 68개 부스로 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하는 ‘2019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이 21일~24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연계해 진행되며 총 56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해 국내외 구매자에게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산업대전은 종합전시관과 기업관으로 구성했다. 종합전시관은 12개 부스로 쌀 가공품 품평회 상위

10위 선정 제품, 가정 간편식(HMR), 글루텐프리·영유아 제품 등에 대해 미켓 형식으로 제품을 소개한다.

참가업체 제품을 활용한 세프들의 요리쇼를 개최해 색다른 쌀 요리 시식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3일에는 제과기능장들이 직접 만든 쌀빵을 시식할 수 있는 쌀빵데이도 운영한다.

기업관 68개 부스에서는 떡·면·과자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56개 업체가 참여해 자사의 제품

을 홍보할 예정이다.

해외 구매자와 상담과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통역을 배치하고 유통·외식 구매자와 관람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참가업체 소개 책자도 준비해 비치한다.

또 2019 쌀가공식품 품평회에서 최종 선정된 상위 10개 제품을 소개된다. 출품된 제품은 유통·식품 등 전문가 평가, 소비자 직접 참여 평가, 현장(위생·경영)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김정주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이 건강·간편식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쌀가공식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외 구매자 유치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의 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기아차, ‘전기차 전용 정비 작업장’ 마련

광주 등 전국 6개 오토큐 설치

기아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정비 작업장을 구축해 전기차 정비 서비스를 강화한다.

기아자동차는 니로 EV, 쏘울 부스터 EV 등 전기차 출시에 맞춰 전기차 고객의 차량 점검 용이성을 높이고 작업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협력사 오토큐에 전기차 정비 작업장 EV 워크베이(EV Workbay)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EV 워크베이는 ▲남광주서비스(광주) ▲천안이온서비스(아산) ▲비전점(평택) ▲서김해서비스(김해) ▲원스탑종합자동차(부산) ▲마포국도서비스(서울)까지 전국 6개소 오토큐에 설치됐다.

기아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EV 워크베이를 ▲대광공업사(충주) ▲현대공업사(청주) ▲증평점(증평) ▲신암점(대구) ▲동홍점(제주)에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또 신규 인가 오토큐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EV 워

크베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EV 워크베이는 맞춤형 디용도 작업대, SST(특수공구), PPE(개인보호장구), 절연 비단재 등으로 구성해 엔지니어들이 효율적으로 차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데 비해 전기차 전용 정비 인프라는 부족해 고객들이 겪을 불편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전기차 정비 인프리를 더욱 확대해 고객들이 전문적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올해 상반기 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21기를 오토큐에 추가 설치하는 등 전기차 운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또 전기차 안심 출동 서비스를 실시해 전기차 운행 중 배터리 방전으로 주행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연 4회, 편도 80km 한도 내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V50 ‘듀얼 스크린’ 마케팅 통했다..갤S10 위협

부진했던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V50 씽큐(ThinQ) 출시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첫 5세대(5G) 스마트폰 V50 씽큐가 출시 첫날 개통량 3만대 돌파 분위기를 이어가며 국내 시장에서 ‘갤럭시 S10 5G’를 위협하고 있다.

출시 첫날 개통량 3만대는 전작인 V40 씽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V50 구매자들에게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을 무상 지급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통신3사와 함께 V50의 공시지원금을 연대급으로 제공한 것도 기존 LTE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V50의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12만5000원짜리 요금제(5G 플래티넘) 기준 77만2000원, KT 13만원짜리 요금제(슈퍼플랜 프리미엄) 기준 60만원, LG유플러스 9만5000원짜리 요금제(5G 프리미엄) 기준 55만원이다. 여기에 유통망 추가 지원금(최대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더 받을 수 있다.

V50의 출고가는 119만9000원이다. 갤럭시 S10 5G(139만7000원)보다 약 20만원 저렴한데다 공시지원금 제도 연대급이라 5G 스마트폰 구매자를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케다가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의 액정 결함에 따른 출시 지연으로 V50의 듀얼스크린이 주목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V50 듀얼 스크린의 무상 제공과 공시지원금 등 혜택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기존 LG 스마트폰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5G 스마트폰이 갤럭시 S10 5G뿐이라는 점도 V50의 초기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게임과 동영상 시청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V50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크린의 다양한 활용법을 담은 디지털컨텐츠인도 진행 중이다. 지금 까지 공개된 ‘LG V50 씽큐 멀티태스킹 편’ 영상은 총 18편이며 추가 영상도 지속 공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한국영업본부 브랜드커뮤니케이션담당 한웅현 상무는 “강력한 멀티태스킹과 높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LG V50 씽큐와 LG 듀얼 스크린의 매력을 지속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달 말이나 6월 초 미국 이동통신사 스프린스를 통해

출시 첫날 개통량 3만대 돌파 분위기 이어가

역대급 ‘지원금’, ‘듀얼 스크린’ 무상 제공 효과

‘핸드 오버(Hand-over)’ 끊김 현상 등 단발기를 보완하기 위해 3주간 출시를 미루며 스마트폰 완성도 향상에 몰두했다.

LG전자는 V50의 장기 흥행을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야구장 외야 조명탑에 LG V50 씽큐를 알리는 대형 옥외광고가 설치됐다. 광고탑 높이는 약 40m에 달한다.

쇼핑, 영상통화, 게임, 인터넷강의 등 고객 실생활에서 LG 듀얼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V50은 듀얼스크린으로 차별화해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를 집중 겨냥하는 등 초기 판매는 긍정적 분위기”라며 “첨단기술을 통한 차별화 있는 경쟁력이 시장의 좋은 반응으로 이어진다. 혁신기술과 차별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구하며 시장우위를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잘나가던 비트코인, 800만원대 ‘주춤’

세력개입설도 나와

비트코인이 1000만원을 목전에 두고 800만원대로 급락했다.

비트코인은 빗썸에서 17일 오후 4시10분을 기준으로 전날보다 98만 2000원(9.53%) 떨어져 873만원에 거

래되고 있다. 최근 900만원대를 형성하며 숨고르기를 하던 시세가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850만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출렁이자 함께 반등하던 암트코인 시장도 동반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38만원(9.44%)가

량 하락해 28만8000원이고, 비트코인 캐시는 6만7900원(13.40%)떨어져 43만89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로 ‘세력 개입설’이 나오고 있다.

가상통화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특정 세력이 대규모로 시장에서 이탈하면서 거래자들에게 공포감을 줬다고 분석했다.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